

2024 청소년캠프

# 그래서 기드해

역사 안에 살아 숨 쉬는 기독교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나서는 여정

교육국

# CONTENTS

주제해설 \_ 3

각과개요 \_ 6

1과 바라보기도해 \_ 7

2과 발견하기도해 \_ 15

3과 나아가기도해 \_ 23

역사탐방소개 \_ 29

## 그래서

2024 청소년캠프

## 기쁘게

## [주제해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_ 마태복음 6장 33절(새번역)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가 수고도 하지 않고 직물을 짜는 일도 하지 않지만,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 왕도 그 백합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를 수반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입을 떼는 일은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소명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밝히고 열등감과 시기와 분노에 눌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탄식의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칭칭 엮어맨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디(Robert. A. Hardie) 선교사는 교만하고 믿음이 없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디 선교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회개와 복음의 바람이 크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욕망에 시달려 지친 마음, 일상의 피곤함으로 흐트러지기 쉬운 나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삶을 조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성도의 삶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좁은 길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즐거움과 가치를 받게 숨겨진 보화에 비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소명의 길은 힘들지만 즐거운 길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Henry. G. Appenzeller, Ella D. Appenzeller)는 기도함으로써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위험할지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향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같은 길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걸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제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윤희의 기도처럼, 주기도문 속의 ‘우리’는 점점 더 넓어져야 합니다. 나만 바라보던 시선이 가족과 친구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알지 못했거나 외면했던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힘들고 위험할지언정, 가야 할 곳에 가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일입니다. 함께 주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용기를 내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 그래서

진심의 기도로 하나님께 돌이켜 참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기를,

## 기도해

# 각과 개요

주제성구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새번역)		
	<b>1과</b>	<b>2과</b>	<b>3과</b>
제목	바라보기도해	발견하기도해	나아가기도해
	로버트 하디의 기도	아펜젤러 부부의 기도	어윤희의 기도
본문	시편 51편 10-12절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일서 3장 23절
중심 성구	<p>10.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p> <p>11.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p> <p>12.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p>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키워드	#나 #회개 #하나님형상 #시선 #자기객관화	#부르심 #하나님의뜻 #나와세계 #진로	#어윤희 #유관순 #서대문형무소 #사랑
추천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시선〉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주 안에 우린 하나)〉
연관 체험학습	서울 발자취 철원 발자취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정동지역 기독교 유적지	서대문 형무소



로버트 하디 관련  
동영상보기

# 1과 바라보 기도해

#나 #회개 #하나님형상  
#시선 #자기객관화

## 시편 51편 10-12절 (새번역)

10.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1.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12.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추천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시선〉

우리는 1인 1디바이스 초연결 시대에 수많은 ‘눈’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나”를 다듬고 키워가는 청소년 시기에 “시선\_눈이 가는 방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선은 곧 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내가 아끼고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와 주고 받는  
시선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증해 주는 좋은 단서이기도 합니다.

##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의 세계는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꼭 바라봐야 하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 역사 속 살아 숨쉬는 기도문

“성령님께서서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했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 1890년대를 살았던 한 사람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의 캐릭터를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기도문에 몇 가지 힌트가 있네요.

-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했던 사람
-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
-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믿음이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의 직업은 선교사다 (O or X)



# 바라보 기도해

1890년 의사이자 선교사 하디(Robert. A. Hardie)는 대한민국을 품고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 제중원에서 의료 사역에 전념했고, 부산을 거쳐 원산 시약소에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의료 사역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던 하디는, 원산에서 만난 한국의 성도들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며 혼내기도 했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디는 1903년 원산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성경 강의와 기도회 진행을 맡게 되었어요. 이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불평하며 비판하기 바빴는데, 정작 자신의 ‘교만’과 ‘믿음없음’이 더 큰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디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령님께서서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했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디의 기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디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두 번째는 하디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하디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성령님의 힘으로 하디는 시선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타인에게로만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 바라보 기도해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었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디의 진심어린 회개 기도는,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 둘씩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울며 고백하기 시작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사회를 움직이는 큰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바람이 바로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뜨거웠던 1903년 원산대 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 기도를 통해 사회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다윗은 위대하고 막강한 왕이었지만, 충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몰아 넣고, 신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일그러진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이 한없이 커져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릴 때, 나는 내 힘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왜곡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 바라보 기도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 “바라보기도”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나’의 균형을 잡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며 성숙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 나누기도

- (1) 하디와 다윗이 했던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2)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떨어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 (3) 가만히 ‘나’를 바라볼 때, 욕심을 버리고 나를 채우는 기도문을 작성해 보아요.

\*연관 체험학습 : 서울 발자취, 철원 발자취

<p>제 목</p>	<p>암호 기도문으로 고백하기</p>
<p>목 표</p>	<p>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점을 바꿔야 할지 스스로 생각한다. 자신만의 상징으로 인정한 문제를 표현함으로써 나의 기도제목을 구체화한다.</p>
<p>준비물</p>	<p>한글 자음, 모음이 적힌 A4용지, 필기도구, 다양한 색상의 풍선, 매직, 풍선 터트릴 수 있는 도구, 십자가와 센터피스, 잔잔한 음악</p>
<p>방 법</p>	<p>· 사전 준비 - 진행자는 한글 자음, 모음이 적힌 A4 용지, 펜을 준비한다.</p> <p>· 진행</p> <p><b>진행자멘트 :</b> “하디의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직접 만든 암호문으로 비밀스럽게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고백해 보려고 해요.”</p> <p>- 참가자는 자신만의 암호문을 구상한다. (자음, 모음 종지와 펜)</p> <p>- 참가자는 자신이 버려야 할, 버리고 싶은 모습을 암호 단어로 조합한다.</p> <p>- 풍선을 크게 붙여 암호 단어를 풍선에 옮겨 적는다.</p> <p>- 참가자는 풍선을 안고 각자 기도한다.</p> <p>- 시간에 따라, 2-4명씩 십자가가 마련된(가운데 혹은 중앙)으로 나와 “하나님, 제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외치고 풍선을 터트린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으로 화답한다.</p> <p>- 십자가 주변에 풍선과 암호가 쌓여있는 모습을 촬영한다.</p> <p>-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친다.</p>

제 목	빈구멍 채워 기도문 만들기
목 표	내가 갖거나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나의 어떤 빈 구멍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살펴보고, 긍정적인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기도문을 작성한다.
준비물	사람모형 도안(인원의 3배수), 필기도구, 안대, 대형 기도문, 테이프 등
방 법	<p>· 사전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자는 성경에 언급된 덕목을 중심으로 문장 3-40개 정도를 미리 작성한다.</li> <li>- 모든 참가자들은 안대를 착용한 채로 둥글게 선다. 진행자는 이 원 가운데에서 활동을 진행한다. (가능한 원의 크기는 진행자-참가자 사이에 10걸음 정도가 떨어지게 만든다.)</li> </ul> <p>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li> <li>- 나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li> <li>- 나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과 사이가 좋아지고 싶기 때문이다.</li> <li>- 나에게 자발적인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아직도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위해 살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li> <li>- 나에게 정직한 영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 거짓말이 있기 때문이다.</li> <li>- 나에게 깨끗한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li> <li>- 나에게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화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li> <li>- 등등등</li> </ul> <p>·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자는 진행자가 외치는 문장이 자신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원 안으로 한 걸음씩 움직일 수 있다.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움직일 수 없다.</li> <li>- 진행자는 자신과 참가자와의 거리를 가늠하면서 문장을 외친다.</li> <li>- 진행자와 참가자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문장 외치는 것을 마무리한다. (동시에 몇 명이 진행자와 가까워질 수도 있다.)</li> <li>- 진행자는 참가자가 서 있는 대형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사람모형의 도안 3장을 나눠 준다.</li> <li>- 참가자는 자기와 관련 있었던 문장/단어/선언을 각 도안지에 한 가지씩 적는다. (총 3가지)</li> <li>- 진행자는 미리 작성한 기도문에 참가자의 사람모형 도안을 붙여 함께 기도하도록 안내한다.</li> </ul> <p>〈기도문〉</p> <p>하나님, 저를( 사랑 )( 정직한 영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자는 각자 가진 사람모형의 도안 3장을 한 장의 사진으로 찍고, 진행자에게 전송한다.</li> </ul> <p><b>Tip:</b> 이 사진은 추후 공간을 꾸미는데 활용할 수 있다.</p>

## <기도문을 만들어 봅시다>



아펜젤러 관련  
동영상보기

# 2과 발견하 기도해

#부르심 #하나님의뜻  
#나와세계 #진로

마태복음 6장 33절 (새번역)

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추천 찬양: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이 시간, 청소년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진로’와 관련한 기도를 생각해보려 합니다. 진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소명)’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존재이므로 ‘세계’ 속에서의 ‘나’에 대해 기도하며 나아갈 길(진로)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래의 역사 속 기도문을 보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선한 길을 걸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 역사 속 살아 숨쉬는 기도문

“하나님,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부활의 날 죽음의 쇠사슬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묶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사용해 주세요.”

여기 19세기 후반 어느 부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이 기도를 했던 사람들의 캐릭터를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기도문에 몇 가지 힌트가 있네요.

-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과 조를 누리기를 원했던 부부
- 주님께 ㄷㄱ로 삼아달라고 기도했던 부부
- 다른 영혼을 ㄱㅇ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어 했던 부부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에서 여기는 미국 뉴욕이다. (O or X)



# 발견하 기도해

아펜젤러 부부는(Henry. G. Appenzeller, Ella D. Appenzeller)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그 뜻을 일궈낸 기도의 사람이며, 1885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착한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들은 원래 일본 선교를 원했지만, 조선(한반도, 이하 ‘조선’으로 표기함) 선교를 준비하다가 중병에 걸린 친구로 인해 우리나라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조선 선교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서양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펜젤러 부부는 하나님께서 조선에 자신들을 부르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오는 것이 걱정되기도 하고 더 편안한 생활을 원할 법도 했죠. 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라 불안한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 대신, 결단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조선 땅에 들어오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부활의 날 죽음의 쇠사슬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묶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을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사용해 주세요.”



# 발견하 기도해

이들은 자신들의 편안함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이웃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고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배재학당과 같은 학교를 설립했으며 정동제일교회와 내리교회 등을 세워 복음을 전파했지요. 뿐만 아니라 언어에 재능이 있었던 것을 활용하여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는 등 교육과 선교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조선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지닌 ‘나’를 발견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세계’ 속에서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했지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관심과 재능이 선한 결과로 이어져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아펜젤러 부부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강점, 성향(예; MBTI, 에니어그램 등), 관심, 은사, 꿈 등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세요(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13:34).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며, 어떤 분야에서 쓰임 받아야 할지 ‘발견하(는)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장단점, 성향, 관심, 은사, 꿈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통해 세상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느 분야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길 원하시나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아펜젤러 부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나아갈 길, 진로)에 대한 응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더불어 진로를 발견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



# 발견하 기도해

님의 뜻(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요. 자칫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죠.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워질 세상을 꿈꾸며 기도할 때, '나'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부르셨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나누기도

- (1) 아펜젤러 부부의 기도문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찾고, 이유를 나눠보세요.
- (2) 내게 주신 장단점과 성향(예; MBTI, 에니어그램 등), 관심, 은사, 꿈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 누군가(혹은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었던 일을 떠올리고 나눠보세요.
- (3) (2)에서 답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나눠보세요.

\*연관 체험학습 :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정동지역 기독교 유적지

# 활동1

제 목	꿈으로 기도 향아리 채우기
목 표	나의 장단점과 성향(예; MBTI, 에니어그램 등), 관심, 은사, 꿈을 적은 공을 기도향아리에 던져 넣는 활동을 통해, 진로 관련 주제를 기도에 담아야 함을 익힐 수 있다.
준비물	볼풀공, 펜, 박스, 흰색 종이, 마스킹 테이프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움직임이 있는 활동이므로 여유 있는 공간에서 진행한다.</li> <li>- ‘기도 향아리’가 적힌 흰색 종이를 박스 겉면에 붙인다.</li> <li>- 마스킹 테이프로 출발선을 표시한다.</li> </ul> </li> <li>·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에 각자의 장단점과 성향(예; MBTI, 에니어그램 등), 흥미, 은사, 꿈을 적는다.</li> <li>- 조원끼리 공에 적은 것들을 나눠본다.</li> <li>- 공을 출발선에 모아둔다.</li> <li>-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의 공을 던져 기도 향아리에 골인시킨다.</li> <li>- 공을 골인시키고 나면 다 같이 모여 손을 잡고 “발견하기도해, 아멘!” 외친다.</li> <li>- 채워진 기도 향아리는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한다.</li> </ul> </li> <li>· 마무리               <p>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장단점과 성향(예; MBTI, 에니어그램 등), 흥미, 은사, 꿈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묻고 확인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한다.</p> </li> </ul>

## 활동2

제 목	가치 기도하기
목 표	진로 가치를 선별하여 그에 맞는 꿈을 생각해 보고, 진로에 관한 기도문을 작성한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가치 - 진로 발견 기도를 익힐 수 있다.
준비물	가치카드 (PPT), 활동지, 펜
방 법	<p>· 사전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로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한다.</li> <li>- 진로 가치<sup>1)</sup>들이 적힌 PPT 화면을 준비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스케치북을 활용한다.)</li> <li>- 활동지와 펜을 조별로 나눠 놓는다.</li> </ul> <p>·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 화면을 띄운다.</li> <li>- 중요한 가치 6가지를 선택하여 활동지에 적는다.</li> <li>- 그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3가지 가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직업을 적는다.</li> <li>- 그중에서도 가장 외닿는 직업을 고르고 그 이유를 작성해 본다.</li> <li>- 활동지 기도문을 작성한 뒤 조원들과 그 내용을 나눈다.</li> </ul> <p><i>Tip: 1. 상황에 따라 기도문을 게시할 수 있다.</i>  <i>2. 활동지 기도문보다 더 길게 혹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i>  <i>3. PPT 화면을 출력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i></p> <p>· 마무리</p> <p>가치들과 연관된 직업을 찾아보며, 진로 발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한다.</p>

1) 가족, 건강, 권위, 기쁨, 능력 발휘, 다양성, 대인관계, 도전, 리더십 발휘, 보수, 사랑, 사회적 인정, 선함, 성실, 성장, 아름다움, 안전, 안정성, 이유, 자유, 일과 여가의 균형, 자율성, 적응, 정직, 종교, 지혜, 질서, 창의성, 책임, 쾌적한 환경, 평등, 평안한 마음, 평화, 행복, 헌신. -이지연 외, 「2018 초·중등학생을 위한 진로상담용 카드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어윤희 관련  
동영상보기

# 3과 나아가 기도해

**#어윤희 #유관순  
#서대문형무소 #사랑**

## 요한일서 3장 23절 (새번역)

23.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추천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주 안에 우린 하나)〉

# 나아가 기도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걸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의미와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더 넓은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배고픔, 가난, 질병과 고통이 점점 더 안타까워, 마치 나의 일처럼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넓고 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와 다르지 않게 살아간 어윤희 선생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좁고 차디찬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방에서는 오늘도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몸은 묶을지언정 내 마음은 묶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자유 독립을 허락해 주세요.”  
개성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여옥사 8호 방에 수감된 어윤희 선생의 기도소리였습니다.

어윤희는 어느 날 개성북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감명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학문적 소양이 깊었기에 학교를 다닌 뒤 교사와 전도부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글씨와 복음을 가르치며 활동을 하죠. 그러다 개성 북부교회가 독립운동의 주요 장소가 되었고,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어윤희도 독립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로 활약합니다.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독립선언서는 손에서 손을 거쳐 전국 각지로 배포되었어요. 어윤희는 자신의 치마폭에 이를 숨겨 나와 개성 거리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만세운동을 이끌었어요. 그 결과 일제

# 나아가 기도해

에게 만세시위 주모자로 잡혀 2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어윤희는 옥에 갇힌 동안에도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고자 재감자들과 긴밀히 연락하여 일제히 옥중만세를 불렀습니다.

좁고 차디찬 감방에서 어윤희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같은 방에는 천안 만세시위의 주역이었던 유관순을 비롯해 심영식, 권애라, 신관빈, 임명애, 김향화 등 여러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있었죠. 어윤희는 이곳에서 어린 유관순을 비롯하여 다른 수감자들을 돌보며 기도했습니다.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옥중 생활이었지만, 자신의 음식을 다른 이에게 양보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이들을 돌봐주시고, 독립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옥사 8호 방에 갇힌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 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데헤이 에헤이 데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8호 감방의 노래\_대한이 살았다)

어윤희는 출감한 뒤에도 독립운동자들에게 비밀리에 여비를 마련해 주었고, 개성에서 유린보육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우고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았어요. 그리고 해방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뒤 다시 보육원을 세워 그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서강감리교회의 장로가 된 어윤희는 천막에서 예배드리던 교회가 보육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나아가 기도해

어유희 장로는 일본의 압제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삶은 기도에 맞추어야 해요. 우리 일상의 작은 표정과 몸짓, 선택과 노력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합니다. 그 삶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나만 바라보던 내 시선이 가족과 친구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제는 전에 알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삶의 완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힘주시며 도와십니다.

## 나누기도하

- (1)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나요?
- (2) 내가 기도하는 ‘우리’의 범위는 얼마나 넓은가요?
- (3)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연관 체험학습 : 서대문 형무소**

제 목	옛날 옛날에~ (이야기 이어하기)
목 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한다.
준비물	푼말, A4용지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의 크기로 아래의 말들이 적힌 푼말을 준비한다.</li> <li>타락, 어려움, 고난, 질병, 기도, 하나님의 음성, 회개, 선행, 축복</li> </ul> </li> <li>·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조가 열명을 넘지 않도록 나눈다.</li> <li>“옛날 옛날에 ○○○이라는 학생이 태어나서 잘 살다가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이 되었어요.”라고 진행자가 누군가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넣어 말한다. (추천: 선생님 이름)</li> <li>- 학생들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li> <li>- 진행자가 들은 푼말의 내용에 맞추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li> <li>- 진행자는 임의로 들다가 후반부에는 기도와 회개, 하나님의 음성과 축복, 선행 등의 푼말을 들어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유도한다.</li> </ul> </li> <li>·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아가며 그 소중한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한다.</li> </ul> </li> </ul>

## 활동2

제 목	주기도문으로 화음 쌓기
목 표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나에 관한 기도에서 우리에게 관한 기도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도록 한다.
준비물	피아노, 실로폰, 아코디언 등 음을 잡을 수 있는 악기나 휴대폰
방 법	<p>· 사전 준비 주기도문을 화면으로 보여준다.</p> <p>·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인원을 세 조로 나눈다.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천천히 화음을 넣어서 읽는다.</li> <li>- 첫 번째 조는 도, 두 번째 조는 미, 세 번째 조는 솔 음으로 우리-라는 말을 천천히 화음을 넣어서 말하는 연습을 시킨다.</li> <li>- 충분히 준비가 되면 ‘우리’가 나올 때마다 화음을 넣어서 주기도문을 읽어본다.</li> <li>- 잘 되지 않으면 진행자가 낭독하고 다함께 화음을 넣어 ‘우리’ 부분만 한다.</li> </ul> <p>· 마무리</p> <p>여럿이 모여 화음을 내려면 서로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온전한 ‘우리’란 어떤 모습일런지 생각해 본다.</p>

본 교재를 통해 만난 주제를 직접 만나보아요! 신앙의 발자취 맵을 소개합니다.  
 서울, 인천, 강화, 철원, 영광, 신안 등 몇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이 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속한 지역의 다른 기독교 유적 답사도 좋습니다.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기도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고 발견해 봅시다.



**\* 만나보기:**

아래 QR코드의 링크를 통해 준비된 여러 장소와 추천 활동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서울발자취**

<https://naver.me/5WHx0GBQ>

**2) 인천발자취**

<https://naver.me/FOM22sgg>

**3) 강화발자취**

<https://naver.me/xmtljCOx>

**4) 철원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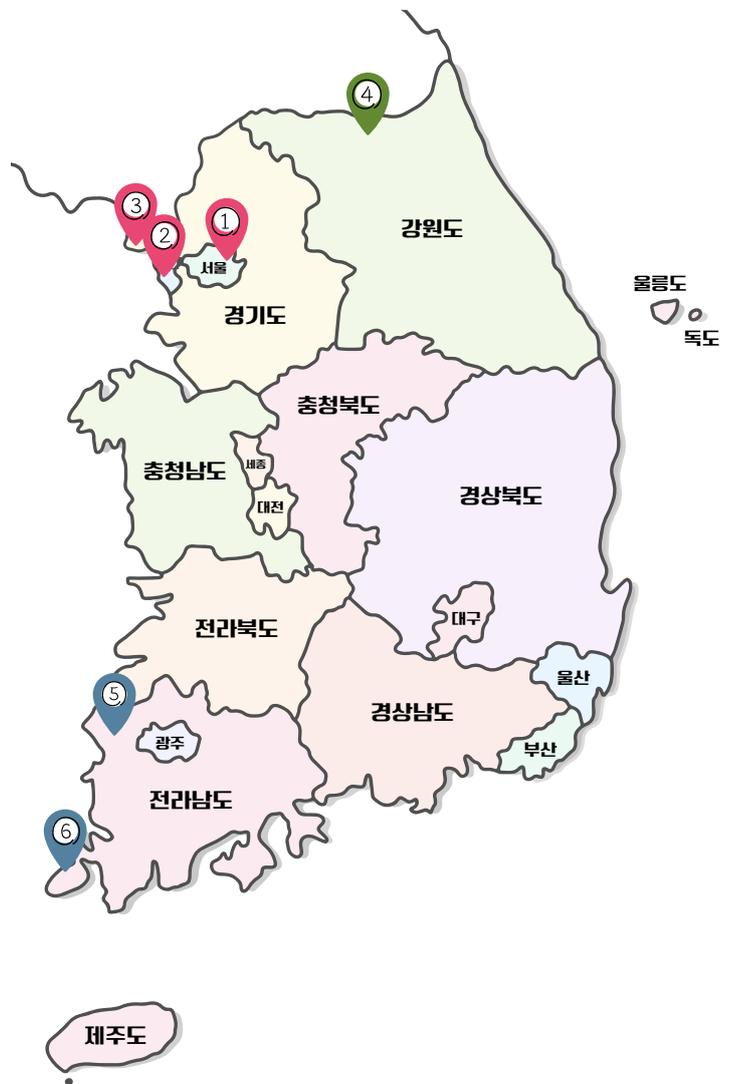
<https://naver.me/GYuVsesr>

**5) 영광발자취**

<https://naver.me/GB5hEJWr>

**6) 신안발자취**

<https://naver.me/5GhtFicI>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의 신앙과 기도,  
그래서 기도해

# 그래서 기도해

2024 청소년캠프

**발행일** 2024년 6월 1일

**발행인** 김두범

**편집인** 조성환 신혜경 이상지

**편집위원** 김국진 김애진 이반석 이진주 황보현

**캘리그래퍼** 유민정

**감수** 양재훈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감리회관 16층

**전화** 02-399-4371, 4367

**디자인 및 제작** 이야기books

〈비매품〉